불교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애도 물결 확산

특별취재팀

10월 30일 조계종 등 종단 애도문 사노위, 가장 먼저 현장 찾아 추모
종단 수장들 서울시청 분향소 조문
조계종, 전국 사찰에 현수막 게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불교계의 애도 행렬이 한 주 내내 이어졌다. 사고 직후 각 종단과 단체들이 잇달아 애도문을 발표해 희생자들을 추모했으며,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각 사찰에서도 추모법석이 잇따라 열렸다. 일부 사찰은 예정된 행사나 축제를 취소하거나 축소키로 결정하는 등 애도물결에 마음을 보태기도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은 10월 30일 애도문을 발표하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와 예방을 강조했다. 특히 "하늘 위 하늘 아래, 생명보다 존귀한 가치는 없기에 더이상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 사회가 사전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종단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11월 1일 전국 일선사찰에 애도현수막이 게재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천태종(총무원장 무원)과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관음종(총무원장 법명)도 잇따라 애도문을 발표하고 "더 이상 이 같은 비극과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교총지종은 10월 31일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함께 "월초 불공을 비롯한 모든 공식 불공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식 왕생성불을 서원 사항으로 추가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30여 불교종단이 소속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도 10월 31일 "10월 29일 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참사 트라우마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 전국여성불자회(회장 김의정) 등 불교계 단체들도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희생자들을 추도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나흘째인 11월 1일 오전 11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참사 현장과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스님들의 행보도 이어졌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10월 31일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추모기도회를 봉행했다. 이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은 사노위 스님 10여 명은 기도회를 통해 희생자들의 극락왕생 발원과 부상당한 이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스님들은 추모기도회 후 흰 국화를 들고 압사 사고가 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앞으로 이동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이어갔으며 헌화로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다시 한 번 발원했다.

참사 발생 나흘째인 11월 1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7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종단 지도자들은 먼저 일반 관례에 따라 헌화와 묵념하고 기도를 올렸다. 진우 스님은 이후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호산 스님, 기획실장 성화 스님을 비롯한 부실장 스님들과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했다.

앞서 진우 스님은 10월 31일 경주 남산 열암곡 일원에서 열린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고불식'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11월 3일에는 종단협 소속 종단 지도자들이 함께 서울시청광장 분향소를 찾아 헌향과 헌화로 희생자들을 추모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애도기간 선포에 맞춰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영석)은 11월 5일 전국적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기후위기 걷기명상'을 잠정 취소했다. BBS불교방송이 11월 2일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가무천년대축제'와 부산BBS불교방송 개국 27주년 특별기획 및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축제도 논의 끝에 행사를 취소키로 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은 11월 3일 종로구민회관서 개최하기로 했던 '2022슈퍼스타 종로' 행사를 잠정연기했다.

이밖에 광주동구불교연합회(회장 중현, 증심사 주지)는 10월 30일 광주 문빈정사 광장에서 국민행복 무등산 산신대제를 추모행사 성격으로 개최했으며, 사람과사회적경제도 1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22자비와나눔행 문화축제'를 3대 종교 추모행사로 축소 진행했다.

조계종,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

11월 2일 인경 · 선의 스님 수상
수진 스님 "종단 위해 노력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직무대행 서봉)은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2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비구 수석합격자는 통도사 포교국장 인경 스님이, 비구니 수석합격자는 칠보사 주지 선의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사진〉

인경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3년 사미계를, 200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WISE캠퍼스를 졸업했다. 선의 스님은 해득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니계를, 200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시상을 진행한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두 스님의 모습과 삶이 종단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이정표가 된다. 앞으로도 부단한 정진을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진 차담에서 교육원장 직무대행 서봉 스님은 "수석합격자인 만큼 도반, 후배 스님들에게 귀감이 돼야 하고 선배에게는 든든한 후배 스님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구 수석합격자 인경 스님은 "통도사라는 큰 절에서 어른 스님들 모시고 사는 복덕으로 이렇게 좋은 어떤 상을 받게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종단과 불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비구니 수석합격자 선의 스님은 "지난해 은사 스님이 원적하셨다.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은사 스님께서 힘을 내라고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108명 스님에 종사·명덕 법계 품서

법계위원회, 11월 2일 조계사서



조계종이 승랍 30년 이상 스님에게 부여하는 종사 · 명덕 법계를 108명 스님에게 품서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는 11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사 · 명덕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이날 종사법계를 받는 49명의 비구스님과 명덕 법계를 받은 59명의 비구니스님에게는 이를 상징하는 21조 가사와 법계증이 각각 수여됐다.〈사진〉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할 때의 간절한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불조의 법등을 계승하는 일에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하라"며 "또 아래로는 큰 자비심을 발하여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여 행복하게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이날 법계품서자들에게 한국불교 중흥과 종단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군대사(逸群大士)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종사 · 명덕 법계는 종단의 지도자 역량을 갖춘 수행자임을 인정받는 공적인 자리이자, 불교의 수승함을 알리는 중요한 소임을 부여받는 자리"라며 "삭발염의로 출가할 당시의 초심을 다시금 세워 후학을 바르게 안내하고, 참된 진리를 사회에 전하는 한국불교의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만당 스님과 지일 스님이 각각 종사와 명덕품서자를 대표로 법계증을 받았으며, 도림 스님과 지오 스님이 대표로 21조 가사를 수지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내년 예산 814억원 편성

동결 기조 속 일부 조정
종회, 11월9일 심의의결

조계종이 불기 2567(2023)년 중앙종무기관 일반 · 특별회계 예산안을 814억여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인한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44% 증액, 특별회계는 7.85% 감액하는 등 일부 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11월 1일 불기 2567(2023)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밝혔다. 예산안은 각 부서별 협의 및 보고절차를 거쳐 10월 28일 교구본사주지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11월 1일 제36차 종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됐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는 283억여원으로, 올해 대비 4억166여만원이 증액됐다. 법인분담금과 문화재관람료, 미수분담금은 동결편성됐으며 중앙분담금과 직할분담근, 특별분담금은 일부 조정됐다. 또 직영분담금은 전년도 내비 5%로 수준인 약 3억원이 증액됐다. 또 일반회계 세부항목 가운데 백년대계본부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65.44%(1억582만여원)가 증액됐는데, 이는 37대 집행부 종책과제인 명상힐링사업 등을 비롯한 조직변화를 염두한 편성이다.

특별회계는 531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45억여원이 감액된 것으로, 백만원력결집 불자 가운데 세종 광제사 및 전통문화체험관 건입사업 종료에 따른 세출 감소로 인한 것이다. 내년도 특별회계에는 양평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사업에 약 51억원, 전법회관 건립예산으로 약 5억2000만원, 10.27법난기념관 건립에 6억 3000만원이, 세종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예산으로 5억여원이 편성됐다.

예산안은 11월 9일 제22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심의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

한국 천주교 교단에 드리는 입장문

서소문 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해인도(법계도)" 나전칠화를 철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불교계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정부예산으로 건립운영하는 서소문 역사박물관과 여주의 옹청박물관, 한국천주교가 바티칸에 기증하여 바티칸 우르바노 대학 로비에 대형 나전칠화가 걸려있는데, 그 작품의 중심에 불교의 소중한 가치를 담고 있는 "해인도"가 십자가에 연결된 묵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천주교는 그 이유를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한국순교자 124위 시복을 기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인도"는 신라의 고승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이치를 도형으로 창안하여 표현한 한국불교의 역작으로서 모든 불자들의 신앙적 귀의를 받고 있는 불교의 성보(聖寶)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불교의 성보이자, 불교교리와 가치를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해인도" 도형이 십자가의 묵주로 변형되어 천주교의 목적에 왜곡되게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겸하여 우리 불교계는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뿌리내리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던불교의 사찰(경기도 "천진암" "주어사")에 대해서도 그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왜곡하여 천주교의 성지로만 둔갑시키는 일련의 '종교역사왜곡 공정'에 대해서도 개탄하며, 그 역사를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서소문 일대의 역사적 의미와 유적을 천주교 순교역사의 성지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한국 천주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는 물론 불교의 역사와 사상까지 천주교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왜곡된 '종교역사 공정'으로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말을 한국 천주교와 우리 모두 다함께 성찰해 보자는 제의를 드리면서,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한국천주교는 불교 상징인 해인도(법계도)를 표절하여 왜곡 사용하는 작품을 즉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소문역사박물관, 여주 옹청박물관, 바티칸 우르바노 대학)
2. 천진암, 주어사, 서소문 역사공원 등의 천주교 성지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왜곡을 인정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천주교의 종교역사공정은 종교간의 평화와 국민화합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천주교 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종교역사공정을 멈추고 종교화합과 국민화합의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전개되는 갈등과 분쟁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한국 천주교 측에 있음을 밝히며, 한국 천주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불기2566(2022)년 10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조계사, 용주사, 신흥사, 월정사, 법주사, 마곡사, 수덕사,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선암사, 송광사, 대흥사, 관음사, 선운사, 봉선사